

바라밀현장

조계사 청년회 '자제정사' 자원봉사

무주상보시 정신으로 9년째 봉사
제철 일거리 기록 노하우 축적
자녀들과 함께하는 산교육장



조계사 청년회원들이 창고에서 말리던 깨묵음을 차에 싣고 있다.

"저 메밀꽃밭 좀 보세요. 달빛이 들면 봉봉이 따로 없더니깐요. 저기 맨드라미랑 붓꽃도 아담하니 이쁘죠? 아이고, 고추 딸 때가 됐구나."

8월 31일 '조계사청년회지혜부 (부장 김석빈)'의 '자제정사 8월 봉사'는 회원들의 애정어린 눈길로 시작된다. 자제정사는 대만의 자제공덕회를 모델로 삼아 자급자족의 복지공동체를 꾸리고 있는 불교계 양로시설. 조계사 청년회는 이곳에서 한 달에 한번씩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상을 내지 않는 무주상보시의 정신으로 이어온 봉사가 올해로 9년째를 맞았다.

"오랜만에 별이 나려고 하니 고추 좀 팔려야죠? 대응전 뒤 잡초는 좀 뽑았나요?" 봉사팀장을 맡고 있는 김정희(35)씨가 일감을 귀신같이 찾아낸다. 청년회가 주로 담당하는 일은 농사일. 인근 1만여 평의 땅을 일구며 사는 자제정사 식구들에게 매달 큰 힘이 되어주는 그들이자. 청년회원들은 매 봉사 때마다 봉사일지를 작성해 제철 일거리를 기록하고 배려할 일꾼들의 노하우를

축적한다. 그래서 청년회의 조직력은 그 어느 단체보다 탄탄하다.

"이젠 오랜 벗들처럼 지내죠. 그래서 힘든 일을 부탁하거나 응하는 데에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어요."

자제정사 총무 경덕스님 말대로 청년회 봉사 일정은 온종일 빡빡한 경우가 많지만, 회원들의 불평은 거의 없다. 오히려 백장 선사의 '일일부작 일일부식(一日不作 一日不食) 정규 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노동의 보람을 느끼게 됐다는 그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 고추를 넘겨나 참깨 더미를 운반할 때, 빨간 감 나무를 쪼개거나 밭이랑에 쪽파 씨앗을 심을 때 언제나 활기찬 모습이다. '봉사의 의무감'을 떨친 이들이기에 모든 일을 여

여하게 받아들일 뿐이다. "이곳에서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을 전해주려 왔는데 풍요로운 마음을 되받아 가는 것 같은 기분 아세요?"

허영근(40)씨는 이곳을 찾을 때마다 마음이 넉넉해져, 봉사 때마다 부인과 아이들을 데리고 올 정도라고 한다. 일부터 주말농장에 가입하곤 하는 마당에 이만한 산교육장이 어디있겠냐고 되묻는 허 씨. 구름 위 법당에선 부처님이 아래를 굽어보고 있고, 밭으로 둘러싸인 시설 마당에는 백일홍, 능소화 할 것 없이 수십 종의 꽃들이 그 자태를 뽐내는 자제정사다.

특히 이번 8월 봉사에는 조계사 청년회 풍

물원이 가세해 자연과 어우러지는 신명나는 한편 공연을 펼쳤다. 마침 안양지역 신행회 '가뭇민가'와 신림여고 학생들도 봉사를 나와 신명나는 흥을 돋구었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자비의 마음은 갈았기에 다가오는 한 가위 만민이나 풍성한 하루였다.

"한시절로 마감하는 봉사활동은 의미없습니다. 불자들이 지역을 아우르는 넉넉함을 가지고 지역복지에 앞장서야 합니다. 지역의 불국토 건설은 그렇게 시작되는 게 아닐까요?" 김석빈(33)씨의 말에 청년회원들이 맡은 이 고개를 끄덕인다. 자제정사를 통한 조계사 청년회의 불국토 건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자제정사 - (031)356-9030

화성=강신재 기자 thalishwy@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조앤 헬리팩스 (J)

일상 생활속 선(禪) 강조

"일상생활 속에서 좌선을 응용하는 것이 당신의 독특한 수행의 핵심인가요?"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일상의 순간들이 특별한 것입니다. 좌선할 때나, 봉사할 때나, 매일 반복되는 삶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죠." ("미국 불자들의 삶과 죽음" 중에서)

'평화주의 선종'의 공동 창설 멤버이자 불교 수행 및 포교단체인 '우파야(Upayal)' 선원의 창립자인 조앤 지코 헬리팩스(Joan Jiko Halifax)는 <인간의 죽음> <사머니즘의 목소리> <사면, 상처받은 치료사> <생산적인 어둠> <미국 불자들의 삶과 죽음: 복잡함 속의 단순함> 등의 저서를 통해 생활 속의 선(禪)을 강조한다. 그 자신 재

는 금녀의 구역으로 깊숙히 걸어 들어갔다.

"나는 수행의 만다라로 모든 생명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

면 일에만 100% 몰입하는 게 요령입니다. 불교 수행은 선방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이며, 삶은 곧 수행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시방(十方)의 세계로 문을 열고 참여해야 합니다. 수행, 봉사, 깨달음, 그리고 모든 사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이란 여행은 거친 마음의 체험들'이라고 말해온 헬리팩스는 여성으로서 매우 쾌활하면서도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는 교도소나 병원 등 거칠고도 위험한 포교 현장으로 뛰어 들었다. 이런 곳에서 외롭고도 긴 시간을 보내면서, 그는 점차 남성들만의 전유물처럼 여겨지던 '수행과 포교'라는 남녀의 구역으로 깊숙히 걸어 들어갔다.

"나는 수행의 만다라로 모든 생명의 고통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마음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인 록펠러(우)와 함께한 헬리팩스.

의 문을 열고 이웃과 함께 하는 삶을 살 것을 주장한다.

"나는 주부 불자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간의 투명한 관계에 관심이 있었죠. 죽어가는 사람들이나 사형수들을 위해 일할 때마다, 거기에서 속속들이 공개되는 개인적인 삶의 비밀들이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에게 늘 이런 질문을 하곤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과 숨김 없이 지내니까?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마음의 문을 열 생각하죠?' ("미국 불자들의 삶과 죽음" 중에서)

헬리팩스는 '어떻게 불교라는 미지의 공간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었나'는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했다. "어

는 중생의 깨어있는 본성, 지혜와 자비의 바다, 상호의존성 안에서 수행합니다." (우파야나선원의 '청구')

이렇게 중생구제에 대한 서원을 세운 헬리팩스는 평소 '3대 행동준칙'으로 몸소 실천하는 불자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첫째, 보호소를 마련하고 실천과 수행의 마당으로 뛰어든다. 둘째, 모든 생명체가 상호간에 경의심을 갖게 되고, 내가 그들의 기쁨과 아픔을 어루만질 수 있기를 서원한다. 셋째, 모든 배고픈 영혼들을 수행의 만다라로 초대하고, 나의 에너지와 자비심으로 지구, 사람, 모든 유정(有情)들을 치유할 수 있기를 서원한다.

김재경 기자

재가자 고통 알고 이웃과 함께하는 삶 주장

교도소등 거친 현장에서 '수행과 포교' 실천

"편안한 임종 지켜드려요"

천태종 니르바나 호스피스 봉사회



천태종 니르바나 호스피스 봉사회 문준규(오른쪽)씨가 임종을 앞둔 어르신들을 돌보고 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처럼 모든 분들이 편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천태종 니르바나 호스피스 봉사회'(대표·윤원준 부산회장) 회원들은 불자들의 마지막 순간을 지키기 위해 모였다. 불자호스피스의 부속으로 임종시 불자들의 개종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을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이

죽음 경계서 불자 개종 늘어 시작

병원 관계자, 타종교에서도 인정

다. 또 유가족 역시 고인과 함께 타종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불자들이 꾸리는 '호스피스' 봉사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됐다고 한다.

니르바나 호스피스 봉사회는 서울과 부산, 제주 등의 도시에서 꾸준한 활동을 벌여 병원 관계자를 비롯, 타종교 호스피스들로

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활동을 시작한 지는 일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경희의료원·동아대병원 아동암센터·부산대병원·메리놀 병원·제주의료원 등 이들이 도움을 주고 있는 병원은 상당수에 이른다.

단체 봉사활동 외에도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하기도 하고, 호스피스 봉사와 관련된 교육과정 이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회원들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 일은 그들이 마지막 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니까요."

살과 죽음의 경계에 서서 더욱더 강해진다는 이금희(45) 회원. 그를 포함한 회원들은 예토를 떠난 이들이 정토에서 거들날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봉사현장으로 향한다. (02) 575-3467

강신재 기자

紫微斗數全書

천년 신수의 왕 자미두수!!

『천하제일의 신수(神數)! 자미두수!!』
천년만에 공개되는 『자미두수』의 핵심비밀
그 유일무이한 교과서!

국내최초로 소개되는 『자미두수』의 가장 완전한 텍스트북! 자미두수를 학습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일독해야 할 책! 정확한 원문수서록과 번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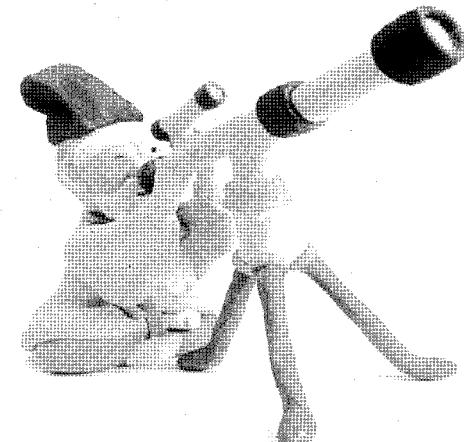
원저자 진희이(陳希夷) 선생
역자 이두 김선호(金善浩)

시주추명학에서 느껴보지 못한 시원함!!

『자미두수전서』

13년 동안의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만과 홍콩의 어떤 해설서도 따라오지 못하는 치밀한 해설과 역사! 7년 7개월 동안 각고의 노력 끝에 탄생한 이 책은 자미두수를 연구하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확실한 스승이 될 것이다.

공자 맹자 손자 등 고대인은 물론 의사 장군 등 현대인까지 무려 121명을 예로 들어 풀이하였고, 특별부록 자미두수 CD를 활용하여 생년월일시를 입력하고 연습한다면, 누구나 3개월 안에 자미두수로 본 인생을 논할 수 있다.



- 추천의 글
 - 자미두수라는 고전을 자신만이 갖고 담은 경험적 진실로 새롭게 재해석 김성기(성균관대학교 교수)
 - 이 책을 일독(一讀)해 보면, 자미두수의 그 경이로운 적응론과 구체적 논리성에 대해 이해가 될 것 韓國紫微斗數學會長 碧張 張正林
 - 중주국인 中國의 어느 해설서라도 능히 제압하는 역작이니 韓國 사계의 福音이다. 易에 관심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널리 권장하여 마지않는 바다. 에스컴퓨터닷컴 대표 李修

전 2권(상,하) 1,700쪽 100,000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특별부록 자미두수 CD

대유학당
2249-5630
www.daeyou.net

동양학의 명문 대유학당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기묘산 현용결 미두점 주역점해 등이 곧 출간됩니다. 대유학보 9월호가 발간 되었습니다.